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26일 뉴욕증시는 연말 소매판매의 부진 우려가 현실화 났음에도 불구하고 GM의 금융지주사인 GMAC가 은행지주사로 전환하여 파산 가능성이 줄어든데다 국제 유가가 반등하며 자동차, 원유관련주의 강세로 상승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47.07p(0.56%) 상승한 8,515.55에 마감. 알코아, 엑손모빌, 코카콜라를 선두로 17 종목이 상승 기록.

S&P500 지수는 전장대비 4.65p(0.54%) 오른 872.80에 마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.34p(0.35%) 오른 1,530.24를 기록.

이날 지수는 연말 소매판매가 최악의 상황을 보였다는 소식으로 한때 하락세를 보였으나 GMAC의 지주사 변환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호재로 인하여 상승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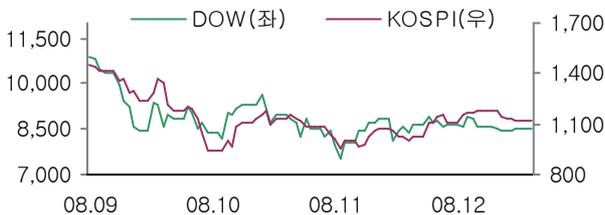
미스터카드사의 스탠딩 펄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전일까지의 미국 소매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8% 감소를 기록. 40%대의 급락을 보인 유가가 소매매출 감소의 절반 가량을 차지.

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가 GMAC의 은행지주사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GMAC는 7,000억달러에 이르는 정부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파산 가능성이 줄어들었다. GMAC의 파산 부담을 덜어낸 GM은 이날 주가가 12% 넘게 급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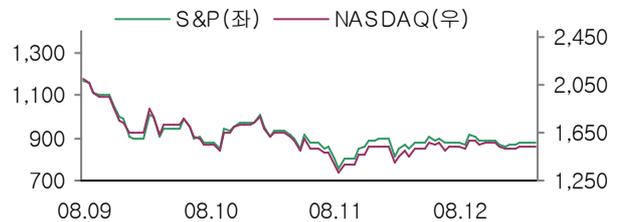
아랍에미리트연합(UAE)은 다음달 중 석유 수출의 15%를 줄일 것이라 발표하여 국제유가가 나흘만에 반등. 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는 배럴당 2.35달러(6.7%) 오른 37.71달러에 마감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515.55	0.56	-0.74	-1.32	-2.42	-22.74	-36.26
S&P(좌)	872.80	0.54	-1.70	-0.79	-1.68	-27.82	-40.88
NASDAQ(우)	1,530.24	0.35	-2.18	-0.68	-0.12	-30.02	-42.83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